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허공으로서 나임을 잊지 말아야

성태를 길러라 ⑤

암만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모습놀이라 하면 흐르르 해. 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이 상승설법을 듣다가도 말이죠, 설혹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유관단 잡을 수 있으면 이걸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유관단 잡아 놓으면 그때는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가지예요. 언제 되도 되거든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 다 먹게 마련이라. 그러하니 이거 인연관계도 있고 업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속히 유관단을 잡도록 이리 나가시다. 유관단을 잡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딱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 늘 하는 말이 그렇지만은 좌우간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이에요.

물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이다. 산하대지 이것도 허공성이다. 태양도 허공성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지 여러분들이 설법을 죽 들어나간다면 참말로 이거 허공성인 거 알거든요.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몸뚱이 지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또 느끼는 자리 밟다 곱다 생각하는 자리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 이것도 허공성이다 이걸 알거든요. 알아도 실감이 안 나. 그건 왜 실감이 안나느냐 말이지 이것이 내다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관리물이라 해 봤든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내 소유물이라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지가 별 수 있나요? 그런 건데 도대체 이걸 갖다가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딱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짚 줄만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짚 줄만 알면 나중에 가서는 이 가짚 중에서 참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로 해서 일초 직업 해서 여러 땅에 들어가는 이런 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초학자의 분수로 봐서는 그 유관단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 어떤 물건이다. 이 지구나 태양이니 어떤 거

다. 이런 유관 좀 잡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이 지구 덩어리가 지금 허공중에 둥둥 떠가 있다 그 말이죠. 또 태양도 그렇고 허공에 의지하고 있어. 나중에 또 이거 없어질 때 허공중에 없어진단 말이예요.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예요?

안다면은 그때 가서 무엇이냐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내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내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공부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위우는 걸 갖다 공부라 여기지 마세요. 아난 존자가 부처님 회상에서 올렸거든요. 속으로도 올고 걸으로도 올렸거든요. 내가 다문제일진데 많이 듣기로는 제일 많이 들었어. 나는 그걸로서 다 된 줄 알았더

“

들은 것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내다 하는' 아만상 없애주세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늘 잊지 않고 생활하세요

”

니만은 아 법이 가섭존자에게 갔단 말이죠. 기가 막힐 일이라. 또 인간관계로 봐도 나는 부처님의 동생이거든요. 종제라, 사촌 동생이라. 동생인데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법이 내게 와야 되었고, 또 아는 거 보더라도 내가 가섭보다 더 알지 모르하는 거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가섭 존자는 잊어버린 거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난 존자는 잊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 부처님 법은 내한테로 온다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한테 어여 법이 가섭존자에게 가 버렸어. 그러하니 울지 않을 도리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문 제일 많이 듣는 거 이거로서 공부를 삼지 마세요. 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아만상이 없어져. 없어. 실로 아만상이란 뭔가 할 거 같으면 내다 하는 그것이지요. 나도 아닌 걸 내다 하는 거 그 무엇이

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다 하는 아만상 그걸 나는 우리말로 거드름, 거드름이라 해요. 거드름 빼 봐도 무슨 소용이 있나. 무엇이 있나. 사실은 속에 풍박이 안 들었는데 무엇이 있나. 거드름 빼 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 거드름의 당처도 빈 건데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첫째 허공으로서의 내. 이거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또 내가 실감이 나든 안나든 말이지, 처음엔 실감이 잘 안 나겠지요. 실감이 안 나더라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가지고서 말도 한 번씩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나온 말마다 내 귀에 다시 들어오도록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의미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그만치 하면 대강 의미는 알게 되는 거. 그러하면은 사물법집입니다. 잡귀가 법집을 못합니다. 법집 못합니다. 주문 주문 무슨 주문 여기 참 최상승 주문이라고 아제아제바라야제 이런 말씀도 부처님께서 해 놔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의미 몰라도 좋아요. 의미 몰라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아침에 딱 일어나 세 번만 하고 나가 보세요. 손해 볼 것 손해 안 됩니다. 크게 어디 다칠 것도 적게 다쳐요. 그리고 그날 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무서운 주문입니다. 주문이란 것이 의미 모르고 하는 그것만 주문인 줄 알니까? 우리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하는 거 말마다 뭐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고 하자 그 말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는 모르는 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끌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자는 요새 사람이 그리 잘 안속아 넘어갑니다. 알아야 돼. 내 눈으로 봐 버려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말이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크게 말해도 좋아요. 또 아이들이 듣지 누가 볼 때 비웃든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내 속으로 속으로 중얼중얼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세 번만 해 보세요. 세 번만. 반드시 그날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한테 쫓아올는지 모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나무아미타불' ... '총섭지의' 진리 내포

13-3. 보은계(報恩戒)

이런 사상은 그가 선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세상에 집단적인 악이 존재한다. 뚜렷한 사실과 또 스케일이 큰 광범위한 선의 참 모습을 그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므로 이 점은 우리가 뛰어난 생각 해 볼 문제다. 이에 신라 화랑(花郎)의 대종장(大宗匠)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백결(百結)선생이라는 분도 훌륭하였지만, 백결 선생이 자기의 스승으로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던 물계자(勿稽子)라는 어른이 있었다. 물계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칼 쓰는 법, 진 치는 법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그것을 익혔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르며 '살려지이다' 하는 것이다. '살려지이다'라는 이것은 그가 칼을 쓰는 것이 결코 사람을 죽인다고나 악업을 짓는다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선, 절대 대 사회라는 목적을 가진 큰 의리 대의(大義)에 산다는 움질일 수 없는 커다란 신념의 소리였다. 이것은 또한 중국철학의 근본되는 주역(周易)에 있는 글, 천지의 대지에 살려지이다. 하는 소리다. 그 소리 '살려지이다'를 불교적으로 본다면 진언(眞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으로 입으로 육체적으로 삼밀(三密)이 가지해서 우리나라는 소리가 이러한 큰 진언이 되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 정성스러운 은혜를 얼마나 감사스러운 일인가 느끼고 스스로 어떻게 보은하도록 하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신구의 업(身口意業)에 몸으로 입으로 마음 쓰는 것으로 설 사이 없이 무유간단(無有間斷)으로 지속하는 기쁨으로서 이러한 생활을 해나간다. 우리들 일상 생활이 늘 이래야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연스러이 생각마다 열불을 외는 것이다. 그래서 심념(心念)이라고 하여 열 번 열불한다.

14. 심념(十念)

나무아미타불(十念)
지금까지 이론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이런 것처럼 것 늘어놓아 펴이나 복잡하

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것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하기 쉬운 것이어야만 이를 받아들인다. 하기 쉬운 것이어야지 복잡하고 어려워서는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생활에 맞추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이다.

앞에서 풀이하였지만 여기서는 내 나름으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생각해 본다.

남(南)이란 우리가 다들 '바르다'는 말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것을 남녘남이라 한다. 임금이 바로 앉아서 선정을 베푼다는 뜻. 임금은 군주주의(君主主義)라는 것보다도 단군(檀君)이나 요순(堯舜)의 시대에서 볼 때 나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어른, 성인(聖人)을 말한다. 임금이 나라 일을 바로 생

정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여튼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 오행설에 비추어 볼 때 남은 불에 해당하는. 불은 광명과 정열의 상징이다.

또 무(無)는 무엇인가? '없음' '무' 자다. 없다는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다는 뜻이다.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허공이다. 그러나 어디로 어떻게 붙잡아서 이것이 허공이다 할 수 없으므로 실상은 이를 엮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장 큰 것을 일컬어 없다, 무다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무로 표현하였지만 이것은 뜻의 풀이도 보다 직접적으로 이를 소리로, 발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항용 소리의 기준은 아(阿)이다. 아어오우이 하는 자음이 붙지 않은 기본 음인 모음에서 제일 첫째 소리며, 따라서 가장 큰 것이 '아' 다. 아빠, 아이참, 하는 따위로 이것은 감동으로서 발하여진다.

“

나무아미타불의 '미(彌)'는
하나의 큰 것 믿는다는 의미
자신이 깨치고 그 다음에
남을 깨치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행동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다.

”

각하고 격정하고 있을 때는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이다. 이것은 남쪽이 정대하고 바르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오행설(五行說)로 비추어 보는 견해다. 오행은 중국사상이 아니라 신채호(申采浩)선생은 말한다. 팔괘(八卦)의 여덟이라는 수가 중국의 것이고 오행은 우리 고조선의 단군 계통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古文化史)에서 중국의 수는 8이고 우리는 5가 정수라고 하였다. 알기 쉽기로는 옷놀이가 있다. 처음 하나 도에서 비롯하여 겨, 걸, 옷, 모로 끝난다. 이래서 우리의 원시적인 수는 모고 그것이 마지막이다. 모 위는 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겨래의 사상은 5를 기본으로 하였다. 첫째 손가락의 수가 다섯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을 기본수로

다음 미(彌)는 무엇인가? 나는 이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믿' 하는 것이 미타(彌陀)란 말이 되었다. 믿는 것이다. 하나를 가장 큰 것을 믿는다. 가장 큰 하나의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깨치고 다음에 남을 깨치도록 하고, 그 깨진 바의 행동을 궁극까지 성취시켜 나가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를 내대로 내가 감히 설명한다면 아주 공명정대하게 정열적으로 무형의 것을 붙들려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유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 그러자면 하나의 큰 기동을 믿어 이를 깨치고, 남을 깨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깨진 바를 행동화하여 실천한다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은 물론 범어지만 우리말로 내 해석으로서 생각해 보아도 역시 재미있다. 이런 뜻에서 나무아미타불은 바로 우리말이고, 우리말의 진언(眞言)이라고 생각한다.

나무아미타불은 진언이기에 총섭지의(總攝之義)가 있다. 모든 것을 두루 포섭해 가진 진리다. 둘째는 독존지의(獨尊之義)가 있다. 홀로 가장 높아야 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7)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삼보양초

중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원사 주지도명 합장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 | |
|--|--|
| |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
| |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
| | 자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 호흡 100% 피로회복, 氣100% 확실히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
| |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
| |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

세계최고! 다보명자,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르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